

685-0111
586-1604 - 2000-11-15

1. 포럼의 개요

1997년 6월 16일부터 20일까지 최초로 장애를 가진 여성을 위한 국제 리더십 포럼이 워싱턴 D.C에서 열렸다. 82개국 614명이 참여한 이 포럼은 1995년 북경세계여성대회에서 채택되었던 행동강령의 이행사항을 검토하고 네트워크 형성과 그 의의를 지속시키기 위하여, 또한 장애여성의 힘과 교육 그리고 변화를 위한 목적으로 개최되었다.

세계 ^{서지} 국제장애인연구소(World Institute Disabilities)가 주관하고 국제재활협회(Rehabilitation International), 국제이동협회(Mobility International USA), 국제장애안연구소(WID)가 주최 조직이 되어 이 포럼을 이끌었다. RI, MI, USA (MI USA)

세계의 장애여성들이 한곳에 모여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게 하기 위해 기회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과 그 반응은 놀랍고 역사적인 것이었다.

WID, RI, MIUSA의 미국지회 실무진들은 북경여성대회에서 장애여성들의 삶의 문제를 공유했던 열기를 지속시키기 위해 지도력 훈련, 네트워크, 실제적 정보의 교환을 논의하기 위한 기획과 섭외를 시작했다.

힐러리 로드햄 클린턴이 명예대회장을 수락했으며, 미 특수교육 프로그램과 재활 서비스국의 담당 차관보인 주디스 휴만(Judith E. Heumann)과 미국 사회보장국 장애인위원회 의장인 수잔 다니엘(Susan Daniels), 두 장애여성도 포럼의 공동의장이었으며 총관리자는 미국 RI에서 활동하고 있는 시각장애여성 캐시 마티네즈(Kathy Martinez)였다.

국제장애인 교류 및 연구 프로그램을 다루기 위해 만든 2,000프로젝트와 관련된 장애단체들이 그들의 공동지원금을 이 행사를 준비하는데 사용하도록 허락했다. 또한 두 공동의장은 미국 교육부와 사회보장국에서 다른 부처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회의를 이끌어내어 비정부기구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는 미정부 산하의 20여개 기관들이 후원자로 참여하는데 견인차 역할을 했다. 이어서 국제조직인 UN, 국제노동기구(I.L.O.), 국제재활협회(R.I.), D.P.I. 외에도 많은 민간단체가 후원으로 참여했다.

포럼의 내용과 형식은 세계 곳곳에서 권의 확보를 위해 성공적 활동을 한 장애여성들의 체험과 그 운동방법들을 공유하기 위한 자리이니 만큼 장애여성들이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정당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도록 역량을 키우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매일 각기 다른 주제를 선정하여 오전에는 그날의 주제와 관련한 기조연설과 발제가 있었고 오후에는 주제를 세분화시켜 워킹이 6개 분파로 나뉘어 열렸다. 저녁에는 그날의 주제와 다르지만 필요로 한 내용들로서 의사와의 대화시간, 각지역별 만남, 기타 장애와 관련한 특별한 시간(Special Sessions)이 고정적으로 진행되었다.

저녁 식사 시간 이후에는 비디오 상영, 친교의 시간 등으로 한시간도 낭비됨 없이 프로그램이 편성되었다.

2. 주제 이야기

첫째날은 "리더십의 양상들"에 대해서 미국 최초의 여성국무장관인 메들린 올브라이트(Madeleine Albright)장관의 기조연설로 시작되었다.

올브라이트 장관은 '95년 북경여성대회에서 자신에게 장애여성 텐트에서의 경험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다며 그때와 동일한 메시지와 변함없는 정신으로 장애를 가졌던 안가졌던 모든 여성은 지구상의 어떤 사회든지 완전한 참여를 주장할 자세를 갖추었다고 선언했다. 그는 장애인 정책에 대해 언급한 후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사회가 완전하게 끌어안는 문제를 진전시키고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제거하기 위한 유엔 헌장과 같은 행동의 주안점을 설명했다.

노윤미 015-8420-8356

도나 샬랄라(Donna Shalala) 미국 보건복지부 장관은 최근 미국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휠체어를 탄 인형 바비들이 어떤 곳도 갈 수 있지만 잘못된 설계로 인해 바비드림하우스에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을 두고 한 고등학생의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의 현실이다."라는 말을 인용하면서, 모든 장애여성이 좋은 교육과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게 하려면 우리는 여러면에서 작은 변화 이상의 것을 필요로 한다. 태도, 정책, 정책 입안자 등에 있어 기본적 변화를 필요로 한다. 그것은 우리의 사고와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마리아 란토(Maria Rantho) 남아공화국 국회의원은 장애인 권리찾기 운동이 인종분리 정책과 어떻게 연대해서 이루어졌는지 대해 강렬하고 인상적인 연설로 참가자들의 환호와 박수를 받았다.

1976년 소웨토항쟁에서 경찰의 저격등으로 장애를 입은 사람이 늘어나고 그들의 활동으로 사람들의 사고와 정서가 변화하기 시작했고 1984년에 남아공 장애인 상임위원회가 처음으로 창설되었다. 그리고 1994년 4월에 있는 남아공 최초의 민주적 선거에서 폭탄과 테러의 위협에도 첫 투표권을 행사하기 위한 장애인들의 긴 행렬은 사흘동안 텔레비전 화면을 채웠고 전국을 놀라게 했다. 그 참여의 결과로 새로 선출된 아프리카 민족회의 정부는 남아공 개발 주요 대상 집단에 장애인을 포함시켰다고 했다.

둘째날은 "교육과 장애여성 개발 원조"대해서 진행되었다.

미국 버클리에서부터 장애인 자립생활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고 이번 포럼의 공동의장인 주디스 휴만은 50년대 자신의 경험을 예로 들면서 교육기회의 차별철폐와 장애소녀들을 위한 교육의 시급한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기본적 의무교육이 아니라 보다 높은 단계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자원을 만들어야 한다, 장애여성들은 사회전반에 걸쳐 많은 역할 모델들을 필요로 한다고 강조하고 "인권은 여권의 권리이며 여성의 권리는 인권이다."라는 것을 상기시켰다.

미국 장애위원회 위원장인 마사 브리스토(Marca Bristo)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연설중 작은 호텔 방에서 적은 수의 여성들과 함께 조직의 지초를 다지던 일, 전세계 여성들로 이루어진 연합체를 꿈꾸었던 것에 대한 것과 페미니스트인 그로리아 스타이넘이 자신의 손을 잡고 "마사, 우리는 어느 곳으로도 갈 수 없어요. 당신이 어디든지 갈 수 있을 때까지는."이라고 했다는 말을 전할 때는 잔잔한 감동이 있었다.

아시아 장애기구 창설자인 일본의 나카시키 유키코는 장애여성을 대하는 아시아인들의 태도에 대한 보고를 했다. 그는 어머니가 늘 집에 있어야 한다는 책임 때문에 종종 장애아와 어머니 사이에는 강한 유대가 생기고 이것이 어떤 경우에는 어머니와 장애아의 동반자살로 이어지기도 한다면 장애아가 태어나는 것은 언제나 어머니의 몫이지 아버지의 것은 결코 아니라고 했다.

셋째날은 "건강과 가족"에 대한 주제를 다루었다.

뉴질랜드에서는 세계 정신의학 수요자협회의 창설자인 메리 오해이건(Mary O'Hagan)은 자신과 장애인들이 함께 성장한 경험을 알리기 위해 참석했다며 지역사회의 돌봄을 받는 경우에는 집안에 한자리를 차지하기 보다는 집 뒤 포치에서 살아야만 했다고 말했다. 정신 건강 분야에서 많은 이들이 가지고 있는 힘은 포기할 수 없는 것이다, 여성들은 함께 뭉쳐 힘을 가진 이들이 그 힘을 긍정적으로 사용하도록 적극적 방법을 취해야 한다고 했다.

니카라과에서의 레즈비아 솔라르자노(Dr. Lesbia Solarzano)박사는 니카라과에서 국가의 효율적 정책 부재와 종종 건강관리를 받지 못한 결과로 수명대로 살지 못하는 장애여성 건강의 심각성에 대해서 이야기 했다.

미국의 마샤 섹스톤(Marsha Saxton)은 자신은 '스피나 빌피다'라는 병을 가지고 태어났으며 인간 염색체 연구의 윤리적 법률적 사회적 의미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왔다.

장애여성과 소녀들의 의견이 유전공학, 생명윤리, 보철디자인,와우각 이식과 같은 인간공학, 장애아 낙태, 동반자살, 안락사 등과 우생학적 간행과 관련한 토론과 정책에 명백히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들의 건강관리와 신체의 치료에 있어서 선택할 수 있어야 하며 장애여성들도 삶에 있어서 적절한 역할을 하고 참여해서 임신과 어머니 같은 모든 경험을 누려야 한다고 했다. 또한 사회의 무지를 타파하기 위하여 우리는 연결망을 만들고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어야 한다고 했다.

넷째날은 "고용"에 대해서 토론이 이어졌다.

공동의장인 수잔 다니엘스는 교육은 특히 장애인에게 있어 보다 전문적인 직업과 연결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반적으로 장애인에 대해 '낮은 기대'를 가지고 있다. 장애인을 위한 '특수비스'는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한 것'을 배우는 '특별한 장소'에 데려다 2개 됨으로써 낮은 기대 수치를 올린다고 하고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일과 하는 일에 있어서 분리되어서는 안된다고 했다.

"정상적인" 일상의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막대한 비용이 든다. 그러나 한사람의 장애인을 고용하는 문제를 생각할 때 제발리 비용을 강조한다. 우리는 특별하지 않은 정상적인 것들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함을 주장해야 한다며 참석자들로 하여금 자기가 앉을 의자를 가져오지 않은 이들은 일어나게 하고 전기를 끈 상태에서 열변을 하여 깊은 인상을 남겼다.

국제 노동 기구에서 나온 에비 메셀(Evy Messell)은 종종 장애여성은 교육기회에 있어 거부되거나 접근이 쉽지않다며 고용기회에 따른 국제사회의 어려움에 대해서 연설했다. 세계장애여성들의 고용기회 확대를 위한 결정적인 필요성 가운데 하나는 교육기회를 넓히는 보다 나은 방법을 개발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우선은 능력있는 개인이 차별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하며 또 항상 지켜보아야 한다고 했다.

8 그리고 자신은 비록 환풍기가 달린 휠체어를 탄 사람이지만 드러나지 않은 장애를 가진 사람을 잊지 말자고 주위를 환기했다.

마지막날은 "의사소통과 기술"에 관하여 토론과 비디오 상영으로 진행되었다.

미국 국립장애연구소에서 나온 캐서린 실먼(Katherline D. Seelman)은 왜 과학기술과 장애인은 밀접하게 관련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 했다.

과학기술과 정보는 고용과 사회와의 융화에도 초점이 되며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고 . 더불어 경제적으로 삶을 수월하게 하기 때문에 가장 필요한 사람에게 먼저 제공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애여성들은 과학과 기술을 취득하고 옹호해야 한다고 했다.

개발도상국은 장애운동에 기술이 접목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지원도 연구중이라고 했다.

방글라데쉬에서 온, 유니세프 교육부서에서 대중매체 작업을 담당하는 리나 길(Rina Gill)은 대중매체로 작업할 때 매체에서 비춰지는 장애, 특히 건강과 교육에 있어서 장애

관련 기관에서 일하는 사람의 장애인에 대한 태도는 아주 중요하다. 또한 화면에서 비춰지는 부정적 장면은 특별한 사람만의 일인양 생각하는 태도였고 긍정적 장면은 상황에 대한 상당한 책임감과 노력을 불러 일으키는 인식의 차이를 보였다고 전했다.

데보라 케플렌(Deborah Kaplan)은 통신에 대한 접근권을 강조하면서 미국에서는 1996년에 장애인들과 전화회사들 간의 협의로 전기통신법이 제정되었다고 했다. 이법으로 화면전화기와 점자전화기 보급에 파급효과를 일으켜야 하며 정부는 장애인들이 통신접근에 문제를 갖지 않고 일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이것은 정부입장에서 볼 때 단계적으로는 비용이 되나 장기적으로는 투자가 되도록 장비의 인식을 보편적 필요로 하는 전략을 잘 세워야 한다고 했다.

3. 맺음말

포럼 기간 동안 아동, 장애소녀, 장애여성이 항상 같은 개념 속에 묶여서 고려되고 있었다.

유치원에서 휠체어를 탄 어린이에게 무용복을 입히고 교사도 다른 휠체어를 타고 나란히 무용을 하는 모습과 왕자님이 휠체어를 탄 공주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 목수가 성에 경사로를 만들어 주었다는 동화의 장면이 비디오로 상영된 적이 있었다. 이때 상호통합을 지향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조기교육을 위한 이것이 우리 만남의 초점이라고 나는 결론지었다. 그리고 이 포럼이 여성들의 만남이라는 정서에 공감하는 시간이었다.

스웨덴 장애인 국제기구(SHIA)는 경험에 의하면 “남성들과 여성들에 의해서 각각 설계된 기획은 그 방법과 주안점에 있어서 여성을 지원하면 한 가정을 지원하는 것이다. 한 남성을 지원하면 단지 한 사람을 지원하는 것일 뿐이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다고 했다.

또한 여성들의 지도력에 대해서 이 포럼의 명예 대회장이었던 힐러리 로드렘 클린턴은 메시지를 통해 “차별과 불평등이 여성에 대해 광범위한 차원에서 존재한다면 안정되고 번영된 세계는 이루어지기 힘들다고 믿습니다. 전세계를 여행해 본 결과 소녀와 여성에 대한 투자가 지역사회의 변화를 돕고 그 지역사회는 다시 사회를 바꾼다는 것을 직접 목격했습니다.”라고 했다.

이번 포럼은 리더쉽이나 그 방법론은 어디에나 적용된다, 그러나 좋은 지도자의 자질이 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아서 자신의 생각이 모든 사람의 생각임을 인식시킬 수 있고 참여를 참여를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 나의 강점과 단점을 알아 이를 남들이 어떻게 인식하는가를 고려할 줄 알아야 한다고 다양한 내용들을 통하여 강조하고 있었다.

진정한 리더는 많은 내가 아닌 더불어 나인 삶과 결사를 아는 것이 우선되어야 함을 다시 깨닫고 리더로서의 방법론적인 것보다는 사회전반의 다양한 부분들에 접근했고 장애인운동과 여성운동에 있어 선배들의 체험과 이념을 공유할 수 있었던 기회였다.